



민족주의와 국민국가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민족과 민족주의를 선도적으로 연구한 영국 출신의 전문가인 스미스(Anthony D. Smith)는 제3제국이 붕괴했을 때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민족주의의 불길은 오늘날 왜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민족주의란 불길은 꺼진 적이 없다. 그것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죄책감으로 인해 그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형식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진보주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자유로운 현대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 각 민족의 영토 구분과 자주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 있는 원칙이라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제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 합의를 따라 세계질서를 형성하면 이민족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유혈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윌슨이 주창한 이 해결책은 아무런 효과 없이 세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귀결되었다.

한나 아렌트가 ‘혼합된 인구 벨트’라고 칭한 유럽 지역에서 또 다른 선택이 내려졌다. 그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많은 민족, 종교, 언어가 서로 가까운 곳에 흩어져 존재하였다. 따라서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 불러온 베르사유 공식이 이 지역에 적용되려면 예상되는 정치 단위의 주민들을 결속할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와 종교, 민족적 전통이 명확해야 한다. 사회학자 겔러(Ernest Gellner)는 민족주의의 장점만 언급하는 관례를 비판하였다. 이는 민족주의가 정착된 이후라면 당연하겠지만 민족주의가 다른 이념들을 쉽게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실수라는 것이다. 겔러는 1925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출생했으나 13세가 되던 1938년 그의 가족

이 나치에 의해 추방되면서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명민했던 그는 학업에 열중해 런던대학, 에딘버그 대학 등에서 수학했고 사회학, 인류학,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논문과 서적을 저술했다. 겔러는 마침내 1974년 영국 한림원에 입성해 사회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겔러는 민족주의 연구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저술로는 『민족국가와 민족주의(Nations and Nationalism)』가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이었던 양차 대전의 배후에는 민족주의란 망상이 항상 있었다. 프랑스에 있는 인권보호 단체이자 반인종주의 운동 단체인 ‘SOS 인종차별주의(SOS Racism)’의 의장 알렘 데지르(Harlem Desir)는 1988년 TV 토론 프로그램 『진실의 시간』에서 “국민성과 국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프랑스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프랑스인이라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공화국의 가치, 즉 인권이란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스스로 정하면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상 차원에서만 아니라 실효성을 동반한 정책 결정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어떤 합의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오늘날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이민정책은 ① 난민과 정치 망명자에게 특별대우 부여 ② 이민을 받

아들일 때 민족차별 금지(예컨대, 바람직한 유럽계 백인 기독교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비기독교도 비백인이라는 식으로 구별하지 않음) ③ 커뮤니티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에서의 이민자의 동화(同化)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유럽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히틀러의 망령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형식적 휴머니즘과 철학적 체념의 맞은편에 히틀러가 있다는 게 유럽의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평등이 아니라 지배다. 다른 인종들은 농노, 날품팔이, 농부, 공장 노동자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하나의 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독일인보다 다른 민족을 더 받아들이는 관용적 이민정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을 뜻하는 단어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을 뜻하는 독일어의 ‘Volk’는 민족을 유기체로 보는 단어로, 피를 전제로 한 속인주의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프랑스어의 ‘Peuple’은 국적을 기반으로 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대다수는 국제 결혼으로 한국의 국적을 얻은 우리 국민이며, 나머지는 국내 기업체에 취업해 있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



로서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유학생을 비롯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교수와 연구원, 기타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는 좀 더 성

숙한 다문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3D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망국적 민족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국민주의여야 할 것이다. **KAIF**